

진짜사장·진짜교섭

현대제철비정규직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D-1 원청은 피할 수 없다

충남투본 1차 대표자회의 열려, 요구안부터 총파업까지 논의

3월 6일 충남지부 원청교섭 투쟁본부 1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충남지부와 지회 대표자, 충남법률원 동지들은 3월 요구안 설계부터 7월 총파업까지 흐름을 공유하고 교섭과 투쟁전술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원청자본을 상대로 전국 여러 하청·자회사 노동조합이 교섭돌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속노조답게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교섭과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업장 조건을 뛰어넘어 크고 넓은 싸움을 위해 충남이 투쟁의 선봉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유불리는 따지며 방법을 찾는 길은 우리의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복잡하고 꼬여있는 만큼, 우리는 간결하고 굽직하게 새로운 길을 뚫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노조법 2조 조항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교섭과 투쟁준비는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전통과 기풍대로 갑니다. 교섭이 안되면 투쟁뿐입니다. 원청자본에게 교섭공문을 보내는 순간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요구안과 총파업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현장이야기 3



물류하청 잔혹사 모비스 책임 반드시 묻는다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사내하청 노동자입니다. 하루하루 노동을 규정하는 실제 권한은 하청 동원로엑스가 아닌 원청 현대모비스에 있습니다. 작업물량, 공정운영, 근무형태, 인원배치까지 현장의 핵심은 모두 현대모비스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작업공정과 동선, 물류 흐름을 설계하고 변경하며, 일일·주간 작업물량과 납기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작업 속도가 정해지고, 잔업과 특근이 반복되며, 필요에 따라 인원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안전기준과 작업방식 역시 원청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요청'이라는 말로 현장에 '지시'를 내립니다.

상황이 이렇진데, 하청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노조법이 개정되었고, 우리는 원청교섭 투쟁에 주저없이 나섭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모트라스 설립 이후 2023년, 우리는 자회사 넥스트로 입사를 거부하고, 현대모비스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하청과의 단체교섭의 판도가 바뀝니다. 과거 6개월이면 마무리를 했던 교섭이, 3년이 되어도 사측은 교섭장에 빈 손으로 와서 입을 달았습니다. 갑자기 왜? 무엇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잔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보복'은 교섭장을 넘어와 일방적인 근무지 이동과 강제 전환배치, 잔업·특근 배제, 임금 동결과 성과급 차별, 소송 포기과 자회사 입사 회유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조합원들은 혹독한 시간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대 재벌자본과 교섭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아산물류센터 잔혹사가 누구의 지휘와 승인으로 쓰여진 것인지... 결국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정동인 / 현대모비스아산물류지회 지회장